

# 남원 근현대 거리 인력거 타고 달린다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에  
근현대거리 체험 콘텐츠 조성  
구 남원역·광한루원 등  
추억의 명소 스크린 여행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에서 조선시대 택시인 인력거를 타고 옛 남원역과 정화극장, 광한루원 등 남원 근·현대 명소를 가상(3D) 3면 스크린으로 둘러볼 수 있다. <남원시 제공>

“1890년대 남원 거리에서 인력거 체험해요.”

21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남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시민들의 추억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에 남원의 근현대거리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조성했다.

‘인력거, 남원 근현대 거리를 달린다(가칭)’라는 주제로 근현대거리를 재현한 체험형 콘텐츠는 남원 구도심의 보존과 재현을 위해 진행된 남원구도심기록화 사업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작됐다.

남원시는 올 상반기 근현대기록관 개관과 함께 운영하는 가상 체험콘텐츠가 단순 전시를 벗어나 시민과 관광객에게 근현대 거리를 체험하는 쌍방향 시간여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험자들은 조선시대 택시인 인력거를

타고 ‘(구)남원역’ ‘정화극장’ ‘용성관’ ‘광한루원’ ‘우편국’ 등 남원 근·현대 명소를 가상(3D) 3면 스크린으로 둘러볼 수 있다.

남원시는 시민뿐만 아니라 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명소에 대한 설명과 함께 펼쳐지는 역동적인 인력거 여행을 체험하

면서 남원의 추억과 애환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원주 남원시장은 “남원 근현대의 역사와 기록을 발굴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해 많은 이들이 찾는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남원다움 체험형 콘텐츠 구축을 위해 지원한 ‘2018년 지역전략사업 특화과제 지원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3억원(국비 2억원,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을 들여 남원 근현대거리 체험형 콘텐츠를 제작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 전북 버스요금 6년만에 평균 10.7% 인상

내달 1일부터 적용... 전주~광주 6900원으로 올라

전북도가 6년 만에 버스요금을 평균 10.7% 인상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달 15일 발표한 운임 상한요율을 적용해 시외·고속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히고 운임 조정에 따라 시외버스 13.5%, 고속버스 7.95% 씩 운임을 인상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인상은 전북도가 전북버스운송조합과 운임 조정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했으며, 특히 이용객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요금인상을 유보했던 전주-

김제-부안, 전주-고창 구간은 유보된 인상분까지 반영했다.

도는 그간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가 있었음에도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시외버스는 6년간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누적된 경영악화 해소 차원에서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주-군산 5300원→6000원 ▲전주-익산 2900원→3300원 ▲전주-김제 3000원→3900원, ▲전주-무주

8400원→9600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전주-서울 1만2700원→1만3800원 ▲전주-인천공항 1만6300원→1만8600원 ▲전주-광주 6600원→6900원, ▲전주-목포 1만2200원→1만4400원 ▲전주-포항 1만9900원→2만26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며, 도와 버스업계는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도록 해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 식량작물 등 3개분야 97개 지원 사업 82억원 확정

정읍시가 2019년도 농촌진흥사업으로 95개 사업에 82억2400만원을 확정했다.

21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정읍시 농업연합동심의회를 열고 식량작물과 소득작목, 농촌사회 등 3개 분야별로 각각 심의·의결했다.

심의회는 식량작물 20개 사업 38억7300만원, 소득작목 40개 사업 32억200만원, 농촌사회분야 35개 사업 11억4900만원을 확정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농업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농업분야에도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심의회에 앞서 2021년까지 심의회를 이끌어 나갈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농업인단체장, 농과계대학교 교수, 분야별 연구기관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했다.

또 기술센터는 올해 1월28일까지 기술센터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서 농촌진흥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았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전북도, 청년 취업·창업·복지에 1922억원 쓴다

89개 사업 추진... 저임금자엔 월 50만원 수당 지급도

전북도가 올해 청년의 취업과 창업, 복지를 위해 1922억원을 들여 89개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먼저 청년 취업을 위한 대책으로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대학산학관 커플링사업 등을 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회적 기업가 발굴·육성, 청년 상인 창업지원사업을 한다.

급여가 적은 취업 청년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수당을 주는 ‘탄탄대로 수당 지원사업’과 건강검진 지원, 청년희망기움 통장 지원 등의 복지 정책도 편다.

청년 문화예술가에게 다양한 기획과 전시 기회를 주고 해외 연수도 지원한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전남테크노파크 해외비즈니스센터 42곳 개설

베이징·싱가포르 등... 우수중기 해외마케팅·판로개척 지원

전남테크노파크가 해외비즈니스센터 42곳을 개설했다. 아시아 베이징·싱가포르, 미대륙 뉴욕, 유럽 런던, 오세아니아 시드니 등이 대표적이다.

21일 전남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전남 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현지인 또는 한국기업이 운영하는 해외비즈니스센터를 개설했다.

센터가 설치된 곳은 5개 대륙, 26개 국가, 34개 도시다.

해외비즈니스센터는 해외영업인력이나 마케팅 여건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현지 영업 및 마케팅을 대행하는 해외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 수요 맞춤형 해외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 활동, 해외 공장 협력체계 구축 등을 맡는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 1월부터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지원 경협이 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 민간네트워크에 등록해 활동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비즈니스센터 운영자를 모집했다. 아시아, 미대륙, 유럽, 오

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5개 대륙에서 84개 기업이 해외비즈니스센터에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바이오헬스케어 소재산업·첨단운송기기 부품산업·에너지 신산업, 청색 청정환경산업 등 전남 전략산업 관련 기업들의 수출망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42곳을 선정, 개설했다.

에너지 도시인 미안마 양곤에는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싱가포르에는 첨단 운송기기 및 의료용 바이오 소재산업 기업들의 수출 촉진을 하게 된다.

특히 미안마와 싱가포르의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도 호흡을 같이할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앞으로 해외비즈니스센터 현판 설치,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바이어와 지역 중소기업간 업무협약 등 해외수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전남지역 대학과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을 추가 모집, 통역·현지문화 교육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강진고려청자 사당리 40호 요지 발굴조사 시작

사적 제68호로 지정된 강진고려청자 요지 중 사당리 40호 요지 발굴조사가 시작됐다.

강진군은 최근 사당리 40호 요지 성공적인 발굴조사를 위한 개토제를 했다. 사당리 109번지 일원인 발굴지는 강진군이 사적을 정비하면서 매입한 부지로 고려청자박물관 사적에 있다.

2017년 2월 시굴조사를 해 규석받침의 고려청자 대접, 완, 접시, 잔 등 다양한 기종이 확인돼 발굴조사로 전환했다.

사당리 요지는 12~13세기 전성기 고려청자 생산의 핵심 장소로 꼽히고 있어 국내 도자기 역사 학회는 물론 중국·일본 학계의 기대와 이목도 쏠려 있다.

2012년 사당리 43호 발굴조사를 했던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원장 한성욱)

이 말아 4월 중순까지 현지발굴을 할 계획이다.

최치현 강진군 문화예술과장은 “강진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입증할 중요한 청자유물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1994년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강진 고려청자요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당리 요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964년부터 1974년까지 8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했다.

청자 압출 양각 당초문 암막새를 비롯한 청자기(瓦片)들과 고려청자의 생산과 관리를 했던 대구소(大口所)의 치소로 보이는 건물지, 사당리 41호 가마를 찾아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 고창군, 경로당 592곳에 공기청정기 보급

고창군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이용하는 관내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공기청정기 보급은 노인들의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군은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해 시설 면적, 건물 구조, 이용자의 수요 등을 파악해 592개소 경로당에 설치를 완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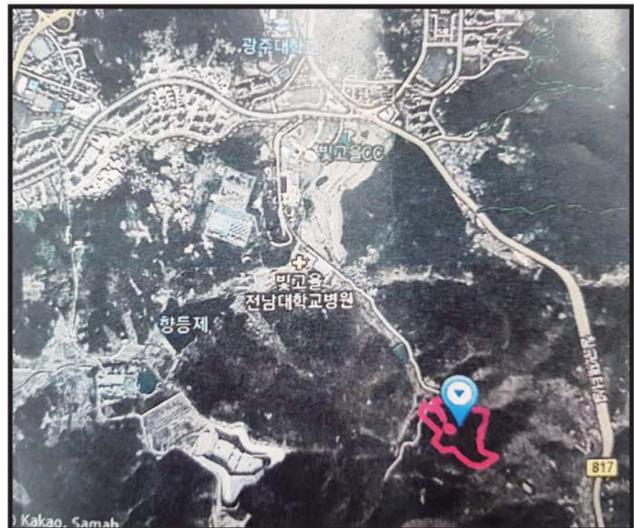
공기청정기 유지보수 업체에서는 5년간 필터 교체와 점검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많은 어르신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마무리 해 기쁘다”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이 마을 중심 생활공동체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공유지분 300평
- 전체 22600평중 일부 매매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장/단기 투자대비 큰수익 가능
- 매매 - 7500만원 (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